

『성경직히광익』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공동체적 전망

박인희*

1. 들어가며

성서는 기독교의 경전이며 동시에 인류 문명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고대 세계에서 성서의 보급은 오늘날 책의 형태인 코덱스의 발전을 촉진했고, 중세에는 성서 번역을 위해 키릴문자가 탄생했다. 18세기 우리나라에서도 성서의 출현은 새로운 공동체적 전망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복음성경 『성경직히광익』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기독교 공동체의 결과물이다. 외부의 어떤 간섭 없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스스로 번역했던 이 복음성경은 조선 사회에 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상을 접하게 했고, 신분 질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적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우리말로 된 최초의 이 복음성경은 한글의 보급과 보존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그 자체로 당시 하층민들에게는 충분한 교육 자료가 되었다. 다시 말해 『성경직히광익』은 기독교의 경계를 초월하는 우리 정신사의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또한, 『성경직히광익』은 성직자 없이 오직 평신도들에 의해 예배공동체를 이어가게 한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신구교를 막론하고 성서의 진정한 힘을 깨닫게 한다. 18세기 후반 탄생한 이 복음성경은 천주교에서는 후대에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parkinhee@ewha.ac.kr.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에 의한 것임(과제번호 2019S1A5B5A07094228).

다시 이 책을 활판본으로 정리하기 전 백여 년 간,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1882년 로스(J. Ross) 목사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¹⁾, 그리고 1885년 이수정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²⁾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글로 된 유일한 복음성경이었다. 무엇보다도 『성경직히광익』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번역된 최초의 한글 복음성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첫 지식인 기독교인들이 조선의 여성과 평민들을 위해 가장 먼저 번역한 최초의 한글 복음서였던 것이다. 우리글로 된 『성경직히광익』은 조선 후기 쇠락한 조선 사회의 쇠신을 갈망하던 젊은 유학자들이 복음을 통해 얻었던 새로운 인간 이해, 곧 만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두가 천부의 자녀라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전적으로 새로운 전망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이 책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의 필사본은 현재 천주교 교회사연구소에 여섯 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1984년에 그 중 보존 상태가 좋은 한 본이 영인본으로 출판되었다.³⁾ 그러나 18세기 한글로 된 흘림체 필사본이라는 이 책의 특성상 읽기 어렵고, 뮤텔(G. C. M. Mutel) 주교의 감독 하에 출판된 이 책의 활판본 『성경직해』가 1890년대에 출판되었기에⁴⁾ 더 오래된 원본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성경직해』에 관한 주요 연구에서도 『성경직히광익』은 활판본 이전 단계의 필사본 정도로 취급되었다.⁵⁾ 또한, 『성경직히광익』에 대한 기본 연구들도 성서학 보다는 국문학 또는 사학적 관점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1984년 처음 『성경직히광익』이 영인본으로 출판될 때는 국문학자 서정수가 해제를 달았다. 천주교사의 관점에서는 이 책의 가치를 밝혀 연구의 초석을 놓은 최석우⁶⁾, 실제 교회 공소에서 이 책이 사용된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 김진소⁷⁾, 그리고 이 성경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특히 원본자

1)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의 번역에는 존 로스(J. Ross) 목사를 중심으로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 이응찬(李應贊), 백홍준(白鴻俊), 서상륜(徐相崙), 이성하(李成夏) 등이 참여했다. (https://www.bskorea.or.kr/bbs/content.php?co_id=subpage2_3_3_1_1)

2) 이수정의 『마가복음언해』에 대한 최근 연구로 옥성득, “1887년 개정판 『마가전복음서언해』 고찰”, 『성경원문연구』 38 (2016), 119-139가 있다. 한편, 16-17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서양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을 엄격하게 통제한 바티칸의 정책에 따라 번역 성서를 출판하지는 못했지만, 필요에 따라 선교사들이 성서를 한역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성경직해광익』, I-IV,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2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4) 『성경직해』, 상·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20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5)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藏書閣』 42:1 (2019), 271-301, 특히 272.

6) 최석우, 『韓國教會史의 探究』, 총3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2000).

7)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민족사와 교회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47-255, 246-282.

료 등을 연구하여 자료 문제들을 다룬 조한건의 연구⁸⁾가 있다. 일반 국사학자 조광의 연구 역시 중요한데, 특히 그의 연구는 이 복음성경의 연대를 확인하고 당시 사회적 정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⁹⁾ 그렇다면, 이제는 성서학의 관점에서 우리 선조들이 주도한 성서번역의 첫 열매 『성경직히광익』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우선 『성경직히광익』을 소개하고, 그 원본을 탄생시킨 시기, 곧 최초의 번역과 유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논하려 한다. 아울러 『성경직히광익』의 본문의 특징을 통해 『성경직히광익』이 제시한 복음의 정신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평신도 교회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는지 보이고자 한다. 곧 이 복음성경을 번역하고 유포하는 전 과정에 반영된 복음의 정신이 어떻게 엄혹한 시대적 한계를 넘어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적 전망을 제시했는지 보이려 한다.

2. 『성경직히광익』 필사본

『성경직히광익』의 100여 년 후 활판본인 『성경직해』의 서문에서 뮤텔 주교는 『성경직히광익』의 번역 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주일과 첨례 성경을 언문으로 번역하고 그곳히 한문 **성경직히와 성경광익**에서 요긴한 즘과 목상대목을 내여…¹¹⁾

여기서 말한 대로 『성경직히광익』은 한역 서학서 『聖經直解』(1642년)¹²⁾와 『聖經廣益』(1740년) 두 권을 합본 번역한 것으로 총 20여 권으로 되어 있다. 『聖經直解』는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디아즈 신부 (Emmanuel Junior Diaz, 陽瑪諾 1574-1659)가 주일과 축일을 위한 복음서 본문을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이다. 『聖經廣益』은 프랑스 출신

8)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1).

9) 조광, 『朝鮮 後期 天主教史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0) 이와 관련하여 현대의 전문적인 성서 번역에 대한 논문으로 조지윤, “성서번역자 양성과 정을 위한 제언 -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체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2 (2003), 121-140이 있다.

11) 『성경직해』 상,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20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4.

12)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도 『聖經直解』(1642년본)와 『聖經廣益』를 영인본으로 출판했다. 『聖經直解』 I, II (陽瑪諾 著, 『天主降生聖經直解』1642년 本),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2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이 초판은 1636년에 나왔다.

의 예수회 선교사 마이야(Joseph François Marie Anne de Moyriac de Mailla, 1669-1748) 신부가 썼는데, 『聖經直解』를 토대로 한 일종의 목상 기도집으로 훨씬 후대의 저작이다. 마이야 신부는 『聖經直解』에서 한문으로 된 복음서 본문을 가져와 여기에 권면과 목상, 기도를 달았다. 따라서 우리글 『성경직히광익』을 합본할 때는 이 두 권의 책이 자연스럽게 한 권으로 엮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한건에 의하면 이 두 권 외에 『聖年廣益』도 원본으로 추가해야 한다.¹³⁾ 그런데 이 경우 마이야 신부의 『聖年廣益』과 이후 필자 미상의 또 다른 『聖年廣益』이 있다는 견해도 있어 아직은 그 원본에 대해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통을 따라 무텔 주교의 말을 따르기로 한다.

곧, 복음서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인 ‘잠’은 『聖經直解』에서, 그리고 목상과 권면에 해당하는 ‘의행지덕’, ‘당무지구’ 그리고 기도 ‘축문’은 『聖經廣益』에서 가져왔다. 『성경직히광익』의 목관활자본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필사본만 알려져 있다. 오랜 박해로 많은 필사본이 소실되어 현재 바티칸에 하나, 한국교회사연구소에 네 개, 절두산 성지에 두 개의 필사본이 있다. 이 필사본들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원래 하나의 원본이 있었고 또 그 원본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각 사본들의 보존 상태는 다음과 같다.¹⁴⁾

소장처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	절두산	절두산
크기	14.3 ×21.9	14.2 ×21.4	12×18	11.6 ×18.5	11.7 ×17.7	11.7 ×17.5
권수	20	14	20	18	20	20
명칭	연구소A	B	C	D	A	B
상태	영인됨	아주 오래된 것으로 추정		파손이 심함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

(여기서 연구소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절두산은 절두산성지를 말한다.)

13)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11-13.

14) 연-A는 앞서 활자본 『성경직히』의 대본이었던 것이고, 연-B는 분량과 내용면에서 연-A와 차이가 거의 없다. 연-C는 작고 깔끔한 글씨로 쓰여져 있으며 역시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D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파손 정도가 심하고, 2권이 분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A는 1970년 5월에 박병래(요셉)씨가 기증한 것으로 당시 한지를 보수한 후에 보관되고 있다. 절-B 역시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22.

한편 박해 중에서 지속적으로 필사되고 암기되던 『성경직히광익』은 1892년~1897년 사이에 뮈텔 주교에 의해 활판본으로 출판되었다. 이때 책의 제목은 『성경직히』로 했고, 성경 본문도 라틴어 성경을 통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활판본이라서 읽기 용이했고, 100여 년 사이 변한 우리말의 차이점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경직히광익』에서 누룩비유의 누룩이 ‘술찌게미’로 나오는데 이후 『성경직해』에서는 술찌게미를 누룩으로 고쳤다.¹⁵⁾ 그러나 『성경직해』의 전체 내용과 순서는 그대로 원본을 따랐기 때문에 『성경직히광익』과 거의 같다.¹⁶⁾

이 『성경직해』의 원본으로 알려진 필사본이 바로 교회사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사본(연구소본 A)으로 1985년 천주교 200년 기념 사업으로 영인본으로 출판된 사본이다.¹⁷⁾ 이 영인본 『성경직히광익』은 18세기 옛 한글로 된 필사체이기 때문에 오늘의 독자가 읽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8세기 한글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함은 물론 다른 기존의 어떤 번역본보다 순수 한글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 서정수에 의한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번역된 『불경언해』, 『두시언해』, 『사서삼경 언해』 등 한자 원문과 한자 문구가 많이 사용된 책들과 달리 『성경직히광익』은 순수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¹⁸⁾

『성경직히광익』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몰수 소각된 서책 목록에서 대거 발견되었다. 이는 대략 18세기 말에 『성경직히광익』의 번역 작업은 끝나고, 많이 유포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성경직히광익』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정, 보완의 가능성이 있다.¹⁹⁾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처

15) “삼왕래조후제육주일성경”, 『성경직해광익』 I, 425-448, 특히 431. 여기 쪽수는 영인본의 쪽수이다.

16) 『성경직해』에 대한 연구로는 조화선, “『성경직히』의 연구”, 한국교회사논총: 최석우 신부 회갑 기념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와 최근 연구로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藏書閣』 42:1 (2019), 271-301의 연구가 있다.

17) 이 영인본으로 만들어진 필사본이 『성경직히』 활판본을 만들 때 사용된 원본이라는 추정은 이 필사본에 고쳐 쓴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경직히광익』에 ‘도성’은 『성경직히』에 예루사렘으로 수정되었는데, 이 필사본에는 도성이라는 글자 옆에 작은 글씨로 예루사렘이 표기되어 있다. “예수성탄전데스주일성경”, 『성경직히광익』 I, 23. 이 글에서도 이 영인본을 사용한다.

18) 서정수, “해제”, 『성경직해광익』 I, 1-9, 특히 6.

19) 예를 들어 필사본 중 “예수성심침례성경”은 한문본에는 없고 한글본에만 있다. 이 축일은 후대에 생긴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직접 도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축일이 한국에 들어온 시기와 필사본의 목차 구성 및 최종 편집 시기와는 매우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뮈텔 주교가 밝히듯, 필사본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과정에서 “조선주교와 신자들”에 의해 성경 본문도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한진, “『성경직히광익』 연구”, 26

음 『성경직히광익』번역하던 초기 상황을 주로 다룰 것이다.

3.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와 『성경직히광익』

『성경직히광익』의 원본『聖經直解』의 저자 디아즈 신부는 『聖經直解』의 서문에서 저술의 목적을 “천주가 주신 그 모든 도리를 온전히 함으로써 사람들이 화목하고, 세상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함께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마치 유교경전 『대학』의 한 구절을 연상시키는 이런 보유론(補儒論)적 설명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기독교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문에서도 디아즈 신부는 이 책의 대상이 학자들임을 밝혔다.²⁰⁾ 이렇게 유교에 우호적인 보유론적 접근은 예수회의 중국 선교의 방침이었고, 당시 유학자들에게 큰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에도 일찍이 마테오리치(M. Ricci)의 『천주실의』, 『교우론』 등 다수의 한역 서학서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한역 서학서가 조선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있었다 해도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탄탄한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던 조선의 유자들에게 서학의 기본 개념들은 불완전해보였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의 세계창조는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졌고, 유학자들이 보기에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영혼 구원의 교리는 내세를 강조하여 사회정치적 책임이나 윤리를 간과하는 가르침으로 비쳤다.²¹⁾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이런 피상적인 이해와 달리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성리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젊은 유학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뛰어난 학식으로 존경받던 이벽, 그의 인척 정약용 형제들, 그리고 이승훈 등 젊은 성균관 유생들이었다.²²⁾ 이들은 기독교적 패러다임에서 신유

20) “學者習覽, 習聽而習玩之. 庶幾知其真嗜 其味而收其益矣”, 『聖經直解』 I, 12.

21) 금장태, “茶山の 儒學思想과 西學思想”, 『茶山 丁若鏞의 西學思想』 (서울: 다섯수레, 1993), 81-100, 86-88.

22) 이벽의 신앙에 대한 연구는 김옥희 수녀의 연구, 김옥희, 『광암 이벽의 서학사상』 (서울: 가톨릭출판사, 1979)가 있으며, 정약용의 종교 사상에 대한 연구는 최석우, “다산 서학에 관한 논의”, 『다산정약용의 서학사상』, 최석우 외 편 (서울: 다섯수레, 1997), 19-80; 김옥희, “다산의 심경밀힘에 나타난 심성론”,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 최석우 외 편 (서울: 다섯수레, 1997), 183-233 외에 금장태의 연구가 다수 있다. 금장태, 『心과 性, 다산의 맹자해석』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5); 금장태,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서울: 살림, 2005). 보다 최근 연구로는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주희와 마테오리치를 넘어 새로운 체계로』 (서울: 이학사, 2007)를 들 수 있다.

학의 세계관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상, 곧 쇠락한 조선을 쇠신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겠다. 정약용은 이벽으로부터 처음 기독교의 세계관을 배웠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갑신년 4월 보름에 만형수의 기제를 마치고 우리 형제가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내려갈 새, 선중에서 처음으로 천지창조의 시작과 형신생사의 모든 이치를 듣고 놀라 아득하여 마치 은하수가 한정 없는 것 같았다.” 23)

이벽을 중심으로 모인 이 젊은 유학자들은 일찍이 자신들의 지식 공동체를 모든 계층에게 개방하여 1785년 명례방(지금의 명동)에 집회소를 열었다. 그런데 이들은 유학자들답게 정치 사상과 개인 윤리를 분리하지 않았다. 하늘의 명(天命)을 개인의 덕에서 구현하려는 유학의 이념들을 속속들이 체화했던 이들에게 기독교의 세계관은 지배적인 유교적 체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세계관이자 평등의 사회상을 제시했다.²⁴⁾ 그리고 이는 위기의 조선 사회를 구할 새로운 정치 사회적 전망이었을 것이다.

이미 실학의 세례를 받은 이 젊은 지식인들에게 기존의 정치 시스템은 모순이 극대화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쇠신하기에는 무력했다. 그러나 리(理)와 기(氣)의 성리학적 형이상학과 전혀 다른 인격적인 절대자의 개념,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기독교적 관점은 신분 질서로 단절되었던 인간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새로운 사회상을 가능하게 했다.²⁵⁾ 따라서 이들의 공동체에서는 반상의 구별과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기독교적 자의식, 곧 천부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모두가 평등한 형제 자매였기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신념 속으로 신분 계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흡수되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는 일체의 외부적 요인, 곧 선교사나 바티칸의 영향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책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의 결단에 의해 한국의 첫 기독교 공동체가

23) 최석우, “茶山 西學에 관한 논의”, 27에서 재인용.

24)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근대적 정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음이 가진 기본적인 평등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초기 신도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조광, “初期信徒들의 天主教 認識”,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110.

25) 이러한 이해는 天에 대한 다산의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신유학의 최고 원리인 理가 아닌 天의 인격적인 主宰, 또는 上帝 곧 신의 존재를 인식할 때 인간의 선의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음을 논했다: “...군자가...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는 上帝가 그를 굽어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茶山, 中庸自箴 券一).” 丁若鏞, 『國譯 與猶堂全書』, 전주대호남학연구소 역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86), 203.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작된 평신도 공동체는 이 지식인들의 지도력이 모두 와해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세계 선교 역사에 유래가 없는 오직 고유한 한국적 전통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 민중들을 위해 쉬운 우리글로 저술하고 번역한 우리글 신앙 서적과 성경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천주실의』와 같은 한역 서학서는 한문으로 되어 양반 지식인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정약종의 『주교요지』는 조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과 쉬운 풀이로 된 교리서였다.²⁶⁾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천주실의』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책은 복음성경인 『성경직히광익』이었다. 가장 널리 유포되고 끊임없이 필사되었던 이 복음성경은 모든 지도력이 와해되고 극심한 박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평신도들이 신앙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4. 박해 상황과 『성경직히광익』의 역할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 초기 지식인들의 활동은 1801년 신유박해 이후에는 완전히 와해된다. 1785년 첫 명례방 집회소가 적발되던 을사추조적발 사건, 이어 1791년에 서학이 국법으로 금해져 박해가 가중되었지만, 정조 임금의 사후 벌어진 신유박해는 본격적인 정치적 박해였다. 이제 천주교 박해는 이단 사설을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대대적인 박해로 돌입했다. 이렇게 천주교 박해는 권력 집단의 정치 탄압과 분명 관련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뿌리는 더 깊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신유학의 이념에 정초한 국가였다. 이런 조선에서 지배층인 관료와 학자들이 유학적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사상에 매료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이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 신유학의 근본인 기(理)와 리(氣)를 능가하는 만물의 주(主)를 믿고, 나아가 그를 천부로 인식하여 임금과 아버지보다 앞세운다면 이는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대죄가 되는 것이었다. “무군무부(無君無夫)”의 패륜지교라는 서학에 대한 고발이 함의 하듯,²⁷⁾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조선 사회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26) 주교요지는 여러 본이 있는데 그중 절두산본이 가장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서종태 편, 『주교요지』 上·下 (서울: 국학자료원, 2003), viii.

27) 명례방 사건 이후 조정에서 지속적으로 서학의 폐단에 대해 논의되었다. 그 예로, 승정원 일기 중 정조 12년 8월3일 임진, 서학의 폐단을 논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체제공이 이르기를 … 인륜을 무시하고 상도를 배반하는 가운데 큰 것으로는 저들이 높이는 대상이 하

사실 조선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이념을 실제 정치 시스템으로 탁월하게 구현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교의 효제(孝悌)사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했던 중국의 군주들²⁸⁾ 이나 폭력적 무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용한 도쿠가와 정권과 비교할 때²⁹⁾도 확연히 비교된다. 통치자와 지배 엘리트들에게 자기 수양의 덕목을 요구하고, 국사를 관료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조선은 유교가 지향하는 덕치의 정치 이념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신유학의 정치 시스템은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급격히 쇠락하여, 관료 지식인들의 나태와 부패, 중간관리들의 횡포, 그리고 급증한 양반 계급의 수로 인해 가속화된 반상의 차별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거나 유랑민이 급증하는 등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젊은 지식인들은 서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부터 신유학적 이상이 완수하지 못한 공동체적 비전, 곧 유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을 수행할 새로운 대안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통해 지배층의 각성과 쇄신을 도모하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보이는 자비와 평등의 공동체적 이상을 통해 조선을 새롭게 견인할 정치 사회적 대안이었을 것이다.³⁰⁾ 이렇게 조선의 기독교 공동체는 젊은 유학자들의 새로운 정치적 전망과 이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이 맞물려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평등의 공동체가 탄생했기에, 노회한 봉건사회를 쇄신할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791년 조상 제사 문제로 서학은 국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었고, 1801년 신유박해를 기점으로 이 지식인 지도력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 서학은 급속히 번져 나갔다. 박해를 당하면 사그라졌던 중국이나 일본의 선교 상황과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평등한 사회상을 이미 교회 안에 구현했고, 이를 지속시킬 동력인 성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곧 성서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느님(玉皇) 하나는 조물주(造化翁)이고, 제 아버지는 세 번째로 여기니...이는 아버를 모르는 것이오, 아버를 모르면 임금도 모르니...” 조광, 『정조시대 천주교사 자료집』 I, 권내현역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1999), 111.

28) R. Madsen, “Confucian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D. A. Bell, ed., *Confucian Political Ethics*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3-19, 특히 13.

29) P. Nosco, “Confucian Perspectives o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D. A. Bell, ed., *Confucian Political Ethics*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20-45, 31.

30) In-Hee Park, “Reception of the Bible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Kor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63-175.

사실 국법으로 서학을 금하기 이전부터도 정조 실록에는 서학서를 금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가 빈번했다.³¹⁾ 조선의 지배지식인 계급은 이미 서학의 유포가 사회적으로 가져올 파장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반상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 운동이 가시화하게 되면서 모두가 ‘천주의 자녀’라는 평등의 이념이 민중들에게 급속히 하향 유포되었다. 신유박해 시 형조의 기록인 사학징의(邪學徵義)에는 신자들이 신앙을 통해 평등의 개념을 갖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분명한 기록들이 있다.³²⁾ 그리고 이때 몰수한 서책 목록에서 단연 『성경직히광익』이 압도적이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직해광익의 번역과 필사의 과정을 추적해 보면서 첫 교회공동체가 맺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전망을 확인해 보려 한다.

5. 『성경직히광익』의 번역 작업

『성경직히광익』의 원본이 되는 『聖經直解』와 『聖經廣益』 등 많은 서학서들은 이승훈에 의해서 1784년 이벽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1783년 북경 사절단에 합류하여 북경에 간 이승훈은 거기서 그라몽(J.-J. de Grammont)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책자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달레(C. Dallet)에 의하면 그때 복음성경의 주석과 그날그날의 성인행적과 기도를 갖게 되었다³³⁾. 그리고 최창현에 의해 이 복음성경이 번역되었다고 달레는 전한다.³⁴⁾ 따라서 『성경직히광익』의 번역은 일찌기 교회 설립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801년 신유박해 때 당국의 몰수 기록에서 대거 발견되었던 정황으로 보아 1801년 이전에 번역과 필사, 유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한건은 『성경직히광익』의 본격적인 번역은 북경 교구에서 파송한 정식 중국인 선교사 주문모 신부의 입국(1794년) 이후, 그의 사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³⁵⁾ 천주교계의 입장에서는 『성경직히광익』이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직히광익』을 교회 전통 안에 안전하게 두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성경

31) 조광, 『정조시대 천주교사 자료집 I』, 98-99.

32) 최석우, “邪學徵義를 통해서 본 初期 天主教交會”,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한국교회 연구소, 1982), 46-88, 73-81.

33)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 안응모, 최석우 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307.

34) Ibid., 315.

35)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18

번역은 신구교를 막론하고 공식 교회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성경 번역은 선교사들이 직접 포교 지역의 말을 배워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성경직히광익』도 100년 후 『성경직해』로 다시 활판본으로 정리될 때는 뮈텔 주교의 감수 하에 성경 본문에 대한 수정 작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역사적 기록들은 『성경직히광익』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뛰어넘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조선에는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 입국 이전에 자생적으로 신자가 된 교인 수가 수천을 넘었다. 1794년 그의 입국 시기 이전, 교회는 이미 박해로 인한 치명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의 과정에 있었다. 1791년 국법으로 서학이 금지된 것은 윤지충, 권상연이 조상 제사 문제로 일으킨 진산 사건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학에 대한 조선 사회 상층의 인식은 철저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양반 지식인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몰락했다. 곧 모든 지식인 지도력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대신 그 지도력이 양반 지식인층에서 중인과 여성 등의 낮은 계층으로 이행되면서, 포교가 더 활발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주문모 신부 입국 이전 교인의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 있었다. 당연히 한문으로 된 신앙 서적보다 언문 서학서가 더 많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 신부의 사목 활동에도 평신도들, 특히 강완숙과 같은 여성 신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주 신부가 그의 사목 활동을 문서 사역에 한정했던 이유는 박해로 인한 제약과 그의 언어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주문모 신부는 유난히 우리말에 서툴렀다고 알려져 있다. 입국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우리말이 서툴러, 정부에 체포되었을 때도 필답으로 심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그는 우리말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다.³⁶⁾ 그런 주문모 신부가 한글 성경을 직접 번역하거나 주도적으로 번역 작업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직히광익』의 번역은 달레의 주장대로 최창현에 의해 주도되어 주 신부 입국 전, 번역과 유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사실, 아주 이른 시기 거의 기독교 공동체 설립 초창기부터 서울은 물론 지방, 특히 충청도에 언문으로 번역된 한글 서학서는 이미 널리 유포되었다. 조광은 이 시기 대표적으로 번역된 한역 서학서를 『聖經直解』라고 보았다.³⁷⁾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정조 때의 『승정원일기』 등의 자료들을 볼 때 한글로 된 서학서들은 늦어도 1787년 전에 번역되기 시작했

36) 최석우, “邪學徵義를 통해서 본 初期 天主教會”, 51.

37)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206.

고, 목판 활자로 간행, 보급되기도 했다.³⁸⁾ 예를 들어, 정조 11년 4월27일 승정원일기에 보면 “승정원 계에 사간 이사람이 아뢰기를 천주교의 요술이 나라 안과 민간에 유입되어…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 물든 이들이 많아 언문으로 번역하고 베껴서 서로 전했는데, 그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부우부 같은 자들은 입으로 서로 전하여 심지어 농부가 밭갈이를 그만두고 여자들이 베 짜는 것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역관배들이 서로 전한 것입니다… 청컨대 금령은 신칙하고 반포하여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하여금 요사하고 거짓된 서책을 무역해오는 폐단을 끊으소서.”라고 하여 왕이 받아들여 시행하게 하였다.³⁹⁾ 여기서도 보면 서학책의 언문 번역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명례방 사건 불과 이 년 만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언문 서학서가 번역되었다면 이 작업은 첫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한 초기 기독교 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당시 조정에서는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전파된 이 불온한 사상은 책을 없애면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명례방 사건 이후 바로 이듬해 1786년 정조 10년에 재차 금서령이 내려지면서 법령이 강화되어서 서학서에 대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1787년에 이미 언문 서학서가 시골까지 파고든 것이었다. 서학책의 유포가 심각해지자 조정에서는 1788년부터는 양반의 경우 책이 발견되면 상민으로 만들어 버렸다. 또 진산 사건 이후에는 형조에서도 별도의 계목을 설치하여 서학서책들을 소각하고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서학 관련 서적들도 다 불태워버렸다.⁴⁰⁾ 이렇듯 조선에서의 천주교 유포는 책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국법으로 서학을 금지하기 이전 서학서의 수입과 유통을 먼저 금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양반 계급에서의 서학책의 유포는 철저하게 금지되었기에, 대신 낮은 계층으로 언문 서학서가 일찌기 파고들 수밖에 없었고, 그 대표적인 책인 『성경직히광익』의 번역과 유포 역시 주문모 신부 입국 이전, 곧 외부의 선교사가

38) 李圭景의 「斥邪教辨證設」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洪樂安의 대책문을 인용하며, 1787년부터 1788년에 이미 충청도 지방에는 거의 집집마다 한글을 한글로 번역하여 서학서를 외우고 전하여 부녀자와 아이들에게까지 서학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통탄하고 있다. 그리고 1791년 당시 전라도 珍山郡守로 있던 申史源도 자신이 예산에 재임하고 있던 시절(1786년부터 1789년 사이)에 예산의 촌백성들이 번역된 한글 서학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승정원일기 90권 74쪽). 또한 李景溟도 1788년 당시 ‘언문’ 서학서가 전국에 두루 퍼져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승정원일기 87권 655쪽).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205.

39) 조광, 『정조시대 천주교사 자료집』 I, 98-99.

40) Ibid. 226.

주도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6. 번역자와 필사가들: 지식인, 중인, 여성들

달레가 『성경직히광익』의 번역자로 꼽은 최창현은 최초의 신앙인 공동체에서부터 활동했던 역관 출신 중인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수준은 양반 계급에 못지않았고, 명례방 집회 이전부터 양반 지도력이 와해된 이후까지 교회를 이끌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관천(冠泉)이란 호로 더 잘 알려진 창현(昌顯)이라고 불리는 최 요한도 역관 집안 아들로써 활동적이고 정력 많은 인물이었다. 천주교에 나온 후로는 모든 교회 서적들을 자기 손으로 베껴, 그것으로 크게 봉사를 하였다. 그의 책 베끼는 솜씨가 어떻게나 평판이 높았든지 책을 가지고 싶은 교우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를 찾아갈 정도였다. **主日과 祝日 성경의 해석이라는 한문책을** 조선말로 번역한 사람이 그였다고 한다.”⁴¹⁾

최창현은 초기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양반 지식인들이 처형되거나, 배교할 때도 한결같이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성경직히광익』의 번역부터 필사와 유포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 그를 기독교로 이끈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 설립의 장본인 이벽이었는데, 그는 최창현 이 회에도 여러 중인 계층을 일찍이 포교했다.⁴²⁾ 최창현은 1784년 겨울에 이벽의 집에서 정약전을 대부로 삼아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의·역계(醫·譯系) 중인으로, 조선 후기 의역계 중인들은 전문 지식은 물론 유학에 대한 학문적 수준도 갖추었으며 직무상 해외 정세에 비교적 밝고,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중인들은 천주학에도 개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⁴³⁾

한편, 『성경직히광익』의 방대한 분량과 빠른 유포를 볼 때 『성경직히광익』의 번역 작업은 최창현 뿐 아니라 초기 지도자들이 협력했다고 보인다. 1785년 을사추적 사건으로 명례방 성소가 적발된 이후, 이승훈은 다시 신자들을 결집하여 신앙 활동을 재개했고, 1786년 예배를 지도할 신부들을 임명하였다.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평신도 성직제를 구축하면서⁴⁴⁾ 이들은

41)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 315.

42) Ibid., 308.

43)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교회사학』 10 (2013), 10, 7-38.

44) 선교와 교회의 보존을 위해 당시 평신도 신부가 된 지도자들은 권인신, 이준창, 유항검, 최창현, 홍낙민 등이었다. 또 최인길, 정약용·정약전 형제도 평신도 신부였을 것으로 추정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반상의 차별을 넘어서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양민들과 여성들에게 전도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언문으로 서학서를 번역하는 일은 당연히 중요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위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신앙의 문을 열었던 교회 공동체에서 지식인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한문 서학서가 아닌, 언문 성경, 교리서등을 배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처음 교회공동체가 제대로 자리 잡기도 어려웠을 이 짧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1789년에는 신자 수가 1,000명이었다는 기록은 이들의 활발한 활약과 아울러 언문 서학서의 보급을 짐작하게 한다. 그중 이존창의 내포 선교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그의 내포 사역에 의해 충청도, 전라도(지금의 예산) 지역에 중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서학이 널리 퍼졌다.⁴⁵⁾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충청도 지방에 언문 서학서가 난무하다는 고발이 이어졌던 것이다.⁴⁶⁾ 일찍 『성경직히광익』의 번역이 시작되었다면, 조광은 이 작업에는 이승훈, 정인혁, 그리고 권일신, 황사영 등 초기 지식인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⁴⁷⁾ 그러나 진산 사건 이후 계속된 고발과 처형, 배교 등으로 점차 초기 양반 지도력들은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최창현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이 서울에 집을 마련하여 교회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성경을 필사하여 유포하는 데 힘을 썼고, 이로써 양반 중심의 리더십에서 중인과 평민, 여성으로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산 사건부터 신유박해까지 활약했던 많은 여신도들, 글을 다룰 줄 알던 양반가의 여신도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완숙은 내포에서 신앙인이 되어 일가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하여 주로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신유박해 때 순교한 인물이다. 강완숙은 주문모 신부를 모셔 자신의 집에 은신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가담하였다. 강완숙에 의해 궁중의 여인들로부터 여중에 이르는 다양한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⁴⁸⁾ 이렇게 여신도들이 활동할 때는 여신도회와 같은 여성 조직이 만들어졌고, 여성들끼리 신앙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남성지도력 없이 예

된다.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13-14. 세계 천주교사에 유래가 없는 이 평신도 성직 제도는 이후 자신들의 행동이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북경에 직접 사람을 보내 조선에도 사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심지어 이렇게 사제를 요청하고, 국내로 잠입시켜 사제가 조선에 거주하도록 돕는 전 과정을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냈다.

45)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 313.

46) 이민희,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인문논총』 71:4 (2014), 9-43, 특히 17-18;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205.

47)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260.

48) 최석우 “邪學徵義를 통해서 본 初期 天主教交會”, 78-81.

배나 교육을 수행할 때 여성의 문자인 언문으로 된 신앙서들 특히 복음성경인 『성경직히광익』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간주된다.

형조의 기록인 『사학정의』에는 1801년 신유박해 때 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소각된 책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중 한글본 『성경직히광익』과 이 책의 날권 제목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⁴⁹⁾ 놀라운 것은 이 때 발견된 『성경직히광익』은 거의 여성들이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압수목록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한신애, 홍씨 여인의 집에서 다수의 『성경직히광익』의 전본, 또는 날권이 나왔고, 김희인 역시 여성으로 그녀의 집에서 18종의 책자와 134건의 언문 문서가 나왔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 언문을 가장 잘 활용하던 여성 신자들이 『성경직히광익』의 필사에 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⁵⁰⁾ 당국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감시는 철저하지 않았고⁵¹⁾ 여성들은 주로 자기들끼리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필사 작업을 한다 해도 크게 의심받지는 않았다. 이 시기에 『성경직히광익』이 목관활자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⁵²⁾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복음성경의 급속한 보급에는 많은 여성 신자들의 활약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성경직히광익』을 수색하면서 체포된 남성으로 윤현이 있는데, 그는 전문 필사자로 언문서적을 전문으로 필사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 곧 언문 서학서를 전문적으로 필사하여 포교에 사용하거나, 또는 업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에 이러한 언문 필사자들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도 이 복음성경 유포의 배후에는 여성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1801년 대대적인 박해로 최창현을 비롯하여, 초기 지도력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러나 1833년 말 중국의 여항덕 신부가 입국할 때까지 다시 삼십여 년간을 한국 기독교는 성직자 없이 교회를 유지했다.⁵⁴⁾ 이런 상황에서 『성경직히광익』의 역할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 복음성경은 복음서 본문, 해석, 그리고 권면과 기도를 모두 포함한 종합서라 할 수 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물론 신앙 생활의 지침을 배울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

49) 한신애의 집: 성경직히 三卷, 성경광익직히 六卷, 홍씨 여인의 집: 녀슈성탄첩례 一卷, 녀슈성호 一卷, 윤현의 집: 봉지후 三, 예슈성탄 一, 녀슈성탄 一, 성년광익 一, 성경직히 一, 제성첩례 一, 김희인의 집: 聖히네의 二, 녀슈성탄 一, 성여수성호 一, 성경광익 一.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연구”, 18.

50) 이민희,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32.

51) 최석우, “邪學徵義를 통해서 본 初期 天主教交會: 初期教會의 主導人物”, 80.

52)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44 (2006), 210.

53) 이민희, “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9-10.

54)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10, 7-38.

따라서 나중에 조선에 파송된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도 이 책을 활용하며, 주일 집회에서도 사용했다.⁵⁵⁾ 심지어 『성경직히광익』을 신도들이 암송하여 기억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책 없이 내용을 외워서 전달하거나, 또는 언문조차도 배우지 못한 천민들을 위해 책을 암송하고 외웠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듯, 우리말 최초의 복음성경 『성경직히광익』은 그 번역과 필사, 그리고 그 유포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전 계층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민족의 유산인 『성경직히광익』의 내용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7. 『성경직히광익』의 구조와 내용

『성경직히광익』은 『聖經直解』와 『聖經廣益』을 원본으로 번역, 편집한 것으로 총 20여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에는 전례력에 따른 주일 성경들과 축일 성경들이 들어 있다. 각 성경은 주일과 축일을 위한 복음서의 발췌 본문과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묵상과 기도로 구성되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성경직히광익』을 복음해설서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복음서 발췌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전체 사복음서의 약 삼분의 일 이상이 담겨 있지만, 해설과 권면 본문에는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강림후제십이주일성경”의 복음서 본문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포함한 누가복음 15장이지만 이를 해설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원수 사랑의 본문이 들어와 있다.⁵⁷⁾ 다시 말해, 복음서 본문 부분이 아닌 해설, 권면 부분에도 신약은 물론 구약의 다른 성경의 내용이 활용되어 더 많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⁵⁸⁾ 특히 예수의 수난사화는 사복음서 전체가 담겨 있다. 『성경직히광익』을 기초로 이후 1890년대 『성경직히광익』를 원본으로 한 활판본 『성경직해』은 물론 여기에 나온 복음서 구절만을 모아서 『聖經 마두』, 『聖經 말구 누가』, 『聖經 요안』, 『聖經 슈난』과 같은 복음서들이 만들어질 만큼⁵⁹⁾ 『성경직히광익』은 18~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의 유일한 복음성경이었다.

55)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vi.

56) 김진소에 의하면 많은 교우들이 이 책을 거의 외우고 있었다고 한다.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246-282, 특히 247-255.

57) “강림후제십이주일성경”, 『성경직히광익』 III, 259~318, 303. (여기 쪽수는 영인본의 쪽수이다.)

58) 여기 등장하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에 관해서는 조한건이 상세한 목록을 만들어 두었다.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64-65.

59) 안홍근, “해제”, 『성경직해 상』, 4-6.

『성경직히광익』은 『聖經直解』와 『聖經廣益』을 합본하여 번역했지만 원본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복음서본문과 해설은 『聖經直解』에서 가져오고, 권면, 기도는 『聖經廣益』을 따랐지만 번역자들은 이를 편집했다. 예를 들어 『聖經直解』에서는 저자의 서문과 전체 목차, 그리고 색인 등 150여 쪽의 긴 분량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성경직히광익』에서는 이 부분은 다 빼고 대신 책의 첫 부분을 “턴쥬예수그리스도쥬일성경”이라는 제목을 달아 머리글로 만들었다. 원래 이 부분은 『聖經直解』 제1권의 서두로 “천주(天主)”, “예수(耶蘇)”, “그리스도(契利斯督)”, “주일(主日)”, “(성경)聖經”에 대한 각각의 설명들이었다.⁶⁰⁾ 그런데 우리 『성경직히광익』에는 이를 별도의 장치럼 “턴쥬예수그리스도쥬일성경”으로 만들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을 도입부에 설명하는 ‘머리성경’으로 만든 것이다.⁶¹⁾ 그럼으로써 미리 생소한 성경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현대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턴주 - 서국 근본 글에 일으되 ‘**데우스**’라. 천지와 만물의 근원이며 스스로 계신 자, 지극히 신령하사 형상이 없으시고 비로삼도 마침도 없다. 천지와 인물을 조성하시고 선악을 상벌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재이시니 마땅이 받들 분이다. (중략)

예수 - 천주강생하신 후 일흠(이름)이니 번역하면 세상을 구한 자, 자애와 불상히 여기심을 말하여 강생하신 구세주를 예수라 일컫는다. (중략)

그리스도 - 예수의 별호로 기름을 바른 자라 왕을 세울 때 성유를 바르니 만물의 왕이다. (중략)

주일 - 매 칠일마다 성당에 나가 미사에 참여하고 강론하는 도리를 듣고 공경함과 간절함을 더한다. 국왕과 부모를 위하여 친척과 병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천주께 복을 빈다. (중략)

성경 - 성경은 복음이니 복된 소식이다. 천주 강생하신 후 친히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신 바이다. 고교는 십계명을 주신 때로 중국 상왕조 칠년 임인년이며, 천주강생하신 때는 서한 애제 원수 이년, 상거 일천오백십구년이며 저는 고교라 하고 이는 신교라 한다. 고교는 모세에게 신교는 천주가 친히 세운신 것이다. (중략)

60) 『聖經直解』I (陽瑪諾 저, 『天主降生聖經直解』1642년 분), 157-171.

61) 『성경직히광익』I, 1-22.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천주를 “데우스”라는 라틴어 발음으로 표기했는데⁶²⁾ 이는 원문의 두사(陡斯)를 번역한 것이었다. 이는 번역자가 “데우스”라는 라틴어식 또는 중국식 발음을 이미 알았음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18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그리스도”는 디아즈의 『聖經直解』에 나온 계리사독(契利斯督)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직히광익』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절두산 사본)에서는 “씩리스두”로 표기되었다.⁶³⁾ 이는 번역자가 중국어식 발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 번역자였던 최창현이 역관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이 머리글 성경 “턴주예수그리스도쥬일성경” 다음에 복음서 본문이 포함된 주일성경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들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처음에 나오는 “예수성탄전데스쥬일성경”의 본문의 일부를 먼저 소개하려 한다. 되도록 필사본의 원형을 살리지만 필요에 따라 현대어로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하였다.

“예수성탄전데스쥬일성경” (성누가제이십일편)

(복음서 본문) 오쥬-도성에 계실시 성던에 들러가 모든이를 가르치시고…
유시에 예수-문데자 다러 닐으사대 해와 달과 별의 징표잇슬거시오… 중략…

잠(해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지라… 악인의 악을 경계하면서… 쥬 성도들
피야 닐으시대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벗아, 몸 죽이기를 두리지 말라
사람이 네 몸을 죽여도 네 영혼은 죽이지 못하리니 가히 두려움인즉
뉘노 네 능히 네 몸은 죽여도 네령혼은 멸치 아닌는 불의에 너지는 자
니라… 대개 너희들의 진복이 가까왔나니… 진실로 **어진마음과 덕**이
잇고 없음을 저때에 사람이 다 너를 알고 너도 또한 사람을 알것이어
늘 엇지 인제 안심치 아넛나녀… 제 **양심**의 말을 듯지 아니하며 호수
천신의 열어 인도함을 좃지 아니하며… 중략

의행지덕 상공심판

공심판을 생각함이라 성사일은 세후에 반드시 공심판이 있으시리니… 중략

62) 여기서 나온 “데우스”라는 말은 나중에 활판본으로 나온 『성경직해』에는 누락되어 있다. 『성경직해』 상, 9.

63)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36.

당무지구 위죄인지라 (권면)

죄인의 허물곳지기를 위함이라 업드려 턴쥬 내 쥬께 비오나니 네데능을 힘입어 장래의 위험하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며 내주원하심을 힘입어 평안함 권함을 누리기를 얻게하여 오주 예수 성부와 함께 하시며 성부와 함께 하시난다

축문 (기도)

주네 대능을 떨쳐보사 우리죄로 인하여 장차 올 위험에 보호하심으로 건져주시며 네구원하심으로 변하게하시어 너 성부와 성신과 함께 하사 세세에 생활하시고 왕하시닛라 아멘⁶⁴⁾

8. 『성경직히광익』본문의 특징과 의미

『성경직히광익』에 포함된 모든 성경들은 모두 위에 제시한 “예수성탄전 데스쥬일성경”과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서 본문은 다른 본문보다 큰 글씨로 써서 구별했다. 우선 “예수성탄전데스쥬일성경”에서도 해당 복음서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외에 ‘잠’에 다른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직히광익』에는 되도록 복음서 본문이 많이 수록한 특징이 있다. 그중에서도 『성경직히광익』에 가장 많이 포함된 복음서 본문은 예수의 수난과 관련된 본문들이다. “예수 수난침례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수난사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수 수난의 본문들은 교회 설립 초기부터 극심한 박해를 겪으며 늘 순교의 상황에 직면했던 조선의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예수성탄전데스쥬일성경”의 ‘잠’에서 볼 수 있듯, 『성경직히광익』에서는 어진 마음과 덕의 함양 등 유교적 덕목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성경직히광익』의 원본이 되는 『聖經直解』이 보유론(補儒論)적 입장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유교적인 덕목과 부합시키며 설명한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성경인 “저성침례성경”은 마태복음 5장을 다루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난을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부덕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풀었다.⁶⁵⁾ 이렇게 덕을 쌓는 것이 천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예수성탄제삼주일성경”에서는 세속에서

64) 『성경직히광익』 I, 23-45.

65) 『성경직히광익』 IV, 2-126, 27-30.

의 고생은 어진 길을 가기 위한 천주의 사랑,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뜻으로 설명한다.⁶⁶⁾ 이런 보유론적 해석은 지식인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조선의 백성들이 성경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직히광익』의 번역자들은 이렇게 보유론적 입장에서 저술된 원본에서 현학적이거나 난해한 부분이 나올 경우는 과감히 번역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디아즈 신부의 『聖經直解』에는 색인에 해당하는 ‘聖經直解雜事之目錄’이 포함되어 있다.⁶⁷⁾ 이 ‘성경직해잡사지목록’에는 『聖經直解』의 주요 주제어 약 145개가 열거되어 있다. 조한건에 의하면 이는 한문서적으로는 최초의 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⁶⁸⁾ 학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글 『성경직히광익』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본 『聖經直解』와 달리 언문 『성경직히광익』이 겨냥한 독자는 언문을 사용하는 평민과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대신 『성경직히광익』에서는 신앙의 핵심이나 인덕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살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쉽게 복음을 접하게 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경직히광익』은 신앙 교육은 물론 변변한 교육의 기회가 없던 양민과 여성, 그리고 천민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교육의 자료가 되어주었다.⁶⁹⁾

마지막으로, 『성경직히광익』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담은 “강림후제십이주일성경”의 ‘잠’에서는 모든 교우들을 사랑할 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한다.⁷⁰⁾ 이러한 사랑의 윤리는 당시 신자들의 삶의 지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초기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우촌은 이런 이웃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법으로 서학이 금해진 1791년 이후 신자들이 형성한 공소, 교우촌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들은 산으로 숨어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옹기 장사 등을 하며 공동생활을 했다. 또 글을 아는 양반층은 한의학에 종사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교우들 간에 교류하며 돕고, 생계의 방편도 마련했다.⁷¹⁾ 이런 가운데 신자들은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 도왔다.

66) 『성경직히광익』 I, 45-81, 59.

67) 『聖經直解』 I (陽瑪諾 著, 『天主降生聖經直解』 1642년 분), 19-155.

68)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8.

69)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266-267.

70) “강림후제십이주일성경”, 『성경직히광익』 III, 259-318, 303.

71)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276-279.

“... 이들은 그 모든 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형제들에게 무슨 도움을 베풀어줄 줄 알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거두어주니... 이 일을 목격한 노인들은... 그때에는 모든 재산이 정말 공동으로 쓰여졌다...”⁷²⁾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이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결인이나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이들의 이웃 사랑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고 그것은 세계 교회의 경탄을 이끌었다.⁷³⁾ 이는 로마 시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인 역사적 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의 윤리는 실제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과장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성경 『성경직희광익』에서 강조한 사랑의 율법이 반상의 규범을 넘어서는 평등의 사회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국에 퍼지기 시작한 교회 공동체는 양반부터 백정까지 하나의 공동체였다.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복음의 힘이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처형된 백정 황일광은 양반 교우들이 자신을 양반과 똑같이 예우해 주었기에 자신에게는 두 개의 천당, 곧 본향 천국과 사람으로 대접해 준 교우들과의 삶이 있었다고 말했다.⁷⁴⁾ 또 양반 유군명의 경우는 신자가 되자 자신의 모든 노비들을 해방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학징의(邪學徵義)에는 이렇게 반상의 구별을 넘어 신분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고발이 자주 등장한다.⁷⁵⁾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런 평등의 가치관은 천주교 교리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천주교 교리나 그 가르침에는 직접적으로 신분 질서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사회적 평등에 대한 전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광은 당시 천주교가 발휘한 평등의 사회적 기능은 교리가 아닌 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신도들의 양심 성찰을 인도하는 『성찰기략』(省察記略)을 보면,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머슴이나 종이 상던을 뉘워흐거나... 순명치 아니하거나... 주인이 머슴을 머슴이나 종의 영육의 스정을 도라보지 아니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를...”⁷⁶⁾

72)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中, 안응모, 최석우 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16.

73)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256-257.

74)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上, 474.

75) 조광,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106-113, 108.

76) Ibid., 109.

이렇게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천주교회 내에서 주종의 신분 관계는 당연시되었다. 그렇다면 실제 교우촌에서 발생한 신분 질서를 넘어서는 평등의 사회상은 교우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극심한 박해로 내몰린 조선의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지도력도, 어떤 물리적 토대도, 조직도 없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매주일 서로 의지하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고 개인적인 묵상에 사용할 수 있었던 복음 성경, 『성경직히광익』의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이 복음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직접적인 가르침들을 유일하게 접할 수 있었던 신자들에게 여기서 명령하시는 예수의 말씀은 무엇보다 선행되었다고 본다. 천주를 한 아버지로 부르며 모두를 형제자매로 인식하게 하는 복음의 근원적인 평등의 정신은 예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구현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앞서 본 “성탄전 데스주일성경”에서 예수는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벗아”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람을 향해 ‘벗’이라 하듯, 신자들도 서로를 벗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이들은 옛 신분 질서를 넘어섰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공소의 또 다른 이름은 벗들의 마을, 곧 교우촌인 것이다. 이것은 『성경직히광익』에서 발휘된 복음의 힘이었다. 『성경직히광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말씀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뜻을 깨우치고 적용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9. 나가며

한국의 기독교는 18세기말 조선 지식인들의 자생적인 학문적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박해로 처음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한 지식인들의 지도력이 와해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들의 자발적인 신앙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동력을 얻었다. 세계 천주교사에 유래가 없는 이 평신도들의 공동체는 신분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천부의 자녀라는 새로운 인간 이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에 입각한 평등 의식의 발현과 맞물린다. 조선 땅에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설립된 지 불과 5년 만에(1789년) 신자 수가 1,000명에 이르고 진산 사건 이후 전국에 공소, 곧 교우촌들이 생겨나면서 신자들은 양반층부터 천민에 이르기 까지 신분의 차별 없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이런 평등의 공동체적 이상은 이전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해 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정식 사제도 없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수많은 교우촌들이 든든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앙 훈련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때 복음성경 『성경직희광익』은 당시 교우들이 예배와 신앙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의 탄압 속에 자신들을 보호할 물리적 토대가 전혀 없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해 준 그 바탕에 『성경직희광익』이라는 우리글 최초의 복음서가 있었다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 첫 복음성경 『성경직희광익』의 번역과 유포의 전 과정이 예수의 복음을 실행하는 일 그 자체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정신은 언제나 자기 시대를 초월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높은 가치를 실현해 왔음을 『성경직희광익』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아직 『성경직희광익』을 다루는 연구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도 극히 작은 분량만이 다루어졌을 뿐이다. 또 이 연구를 위해서는 성서학을 넘어선 학제 간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소중한 우리 신앙의 유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분명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복음의 울림을 주리라 확신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주제어>(Keywords)

성경직희광익, 서학, 교우촌, 하나님의 자녀, 최창현.

Sungkyung-jikhae-gwang-ik, bible translation, Western Study in Joseon, the Village of Friends, the children of God, Choi, Chang-Hyun.

(투고 일자: 2022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사학징의』, I, 조광 역주, 서울: 한국순교자 현양위원회, 2001.
- 『聖經直解』, I-II (陽瑪諾 저, 『天主降生聖經直解』1642년 본),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2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성경직해』, 상·하,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20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 『성경직해광익』, I-IV, 한국교회사연구자료 제12집,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 丁若鏞, 『國譯 與猶堂全書』, 전주대호남학연구소 역,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1986.
- 금장태, “茶山の 儒學思想과 西學思想”, 『茶山 丁若鏞의 西學思想』, 서울: 다섯수레, 1993, 81-100.
- 금장태, 『다산 정약용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 종합자』, 서울: 살림, 2005.
- 금장태, 『心과 性, 다산의 맹자해석』,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5.
- 김옥희, “다산의 심경밀험에 나타난 심성론”, 『다산 정약용의 서학사상』, 최석우 외 편, 서울: 다섯수레, 1997, 188-233.
- 김옥희, 『광암 이벽의 서학사상』, 서울: 가톨릭출판사, 1979.
- 김진소, “한국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민족사와 교회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47-282.
-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송영배 외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방상근, “최창현의 삶과 신앙”, 『교회사학』 10 (2013), 7-38.
-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주희와 마테오 리치를 넘어 새로운 체계로』, 서울: 이학사, 2007.
- 샤를르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총3권, 안응모, 최석우 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 서종태 편, 『주교요지 上下』,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옥성득, “1887년 개정판 『마가의전한복음서언해』 고찰”, 『성경원문연구』 38 (2016), 119-139.
- 이민18세기 말~19세기 천주교 서적 유통과 국문독서문화의 상관성 연구”, 『인문논총』 71:4 (2014), 9-43.
- 조광, “朝鮮後期 西學書의 受容과 普及”, 『민족문화연구』 44 (2006), 199-234.
- 조광, 『정조시대 천주교사 자료집』, I, 권내현 역, 서울: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1999.
- 조광, 『朝鮮後期 天主教史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8.
- 조지윤, “성서번역자 양성과정을 위한 제언 -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12 (2003), 121-140.

- 조한건, “『성경직히광익』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2011.
- 조현범, “한글 활판본 『성경직해』에 나타난 번역상의 특징”, 『藏書閣』 42:1 (2019), 271-301.
- 조화선, “『성경직히』의 연구”, 한국교회사논총: 최석우 신부 회갑 기념,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최석우, “다산 서학에 관한 논의”, 『다산정약용의 서학사상』, 최석우 외 편, 서울: 다섯수레, 1997, 19-80.
- 최석우, “邪學徵義를 통해서 본 初期 天主教交會”,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한국교회연구소, 1982, 46-88.
- 최석우, 『한국 교회사의 탐구』, 총3권,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2000.
- 최석우, 『韓國教會史의 探究』,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Madsen, R., “Confucian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D. A. Bell, ed., *Confucian Political Ethics*,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3-19.
- Nosco, P., “Confucian Perspectives o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D. A. Bell, ed., *Confucian Political Ethics*, Princeton;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20-45.
- Park, In-Hee., “Reception of the Bible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The Oxford Handbook of the Bible in Kore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63-175.

<Abstract>

**The Community Vision of Early Christian Community of Korea:
Through the First Hangeul Gospel *Sungkyung-jikhae-gwang-ik***

In Hee Park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demonstrates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Korean Gospel *Sungkyung-jikhae-gwang-ik* and its influence on feudal society of Joseon in the eighteenth century. In Catholic mission history,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is evaluated today as an outstanding model of church by lay people, which was greatly in debt to *Sungkyung-jikhae-gwang-ik*, the Bible translation in their mother tongue. *Sungkyung-jikhae-gwang-ik* was translated and edited from two Chinese books, and comprises about twenty books. Its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was led by Choi, Chang-Hyun, but many lay persons regardless of social ranks also participated, especially prominent Confucian scholars. Initially these scholars established the first Korean Christian community solely through independent studying of Christian thought. Although they did this without any foreign influences, this Bible translation is a masterpiece in terms of showing their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message. Furthermore, this translation itself was regarded as a realization of their socio-political vision of a better society which had been recognized from the biblical teaching of love and an equal society in relation with the concept of the children of God.

While the original Chinese books seem to be written for Confucian intellectuals in the upper-class of China, main readers of this Hangeul *Sungkyung-jikhae-gwang-ik* were conversely women and lower-class people. After the initial scholarly leadership was demolished within a decade by the government, Christian communities were rapidly established amongst lower classes of people. Even after the coming of foreign missionaries which accompanied severe persecutions and formed a language barrier to Christian thought, this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cessarily established itself through lay people's voluntary participation. As such, *Sungkyung-jikhae-gwang-ik*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up for the absence of leadership, since it was helpful on the practical level for Sunday worship and lay people's

self-education. Through this, a compassionate and egalitarian Christian society known as the *Village of Friends* was fostered and grew.

Sungkyung-jikhae-gwang-ik constantly highlights Jesus' teaching of love as well as a virtuous life as being the children of God. For example, it accounts the love for enemy as a Christian virtue as seen from the exhortation in "The twelfth bible after the advent" in *Sungkyung-jikhae-gwang-ik*. It would have empowered Christians to live a respectable and altruistic life as attested by many historical records even under brutal persecutions. Moreover, this biblical teaching had urged for a more benevolent and equal society even in highly hierarchical feudal society of Joseon, and eventually realized the community vision of the Kingdom of God.